

● SINCE 1986 ISSUE NO. 446

● www.interiorskorea.com

NOVEMBER 2023

interiors

11



우수콘텐츠잡지
2023



Maison & Objet
September

Hanok

소여정

小餘情

SAWYERJEONG



Architecture & Art Direc STAY Architects www.stayarchitects.com
Project Team Junghee Hong, Jungseok Ko, Pansu Kim
Construction Co. Mido Wallface
Engineering Team J-ONE International
Landscape Botanical Studio SAM
Textile Somidang
Signature Scent Pale Blue Dot
Brand Design Hydraft®
Locati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Area 45m²
Editor Dabin Jo
Photograph Kiwoong Hong



STAY Architects / Junghee Hong, Jungseok Ko

홍정희는 스테이 아키텍츠의 대표이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이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건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창조건축사사무소에서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후, 2018년에 스테이 아키텍츠를 설립하였다. 고정석은 시카고의 해링턴디자인대학교에서 인테리어디자인으로 미술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John Kelly Architects, VOA associates 그리고 창조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후, 홍정희 소장과 함께 스테이 아키텍츠를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 아키텍츠는 공간의 본질적 가치와 변화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과 두 발은 여전히 땅에 닿아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과 장소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대표작으로는 호미양양, Glass House Laboratory, STAY office building, 소여정 등이 있다. STAY Office Building은 2022년도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에서 환경부 장관상인 대상을, 호미양양은 2022년도 강원건축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Junghee Hong is CEO of Stay Architects and an adjunct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Hongik University. She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s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architec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having many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s at Chang-jo Architects, she founded STAY Architects in 2018. Justin Ko received a Bachelor of Fine Arts in Interior Design from Harrington College of Design, Chicago, and after working at John Kelly Architects, VOA Associates, and Chang-jo Architects, he runs STAY Architects with Director Junghee Hong. STAY Architects contemplates the spatial essential and changing values, and strives to create a space where individual experiences and places communicate based on the belief that human two feet are still on the ground even in the flow of change.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Ho Me Yang Yang, Glass House Laboratory, STAY Office Building, and Sawyerjeong. STAY Office Building won the grand prize from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t the 2022 Korea Remodeling Architectural Competition, and Ho Me Yang Yang won the special prize of the 2022 Gangwon Architecture Culture Awards.



스테이 소여정은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많고 상권이 가장 발달한, 경주시 황오동의 황리단길에 위치한다. 전통 한옥과 달리 일반대중의 삶 속 환경이었던 오래된 개량한옥은 지붕 기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한옥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1970년대의 타일 양식과 혼합된 패턴의 문살 등 다양한 시대의 양식이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개량 ‘한옥’을 여러 양식과 시공법이 혼합된 새로운 장소로 조성하고자 했다.

목구조 기반부의 삭음과 부재의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 신축에 가까운 부재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서까래와 그 상단의 흙, 기와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했으며, 들보와 기둥, 인방 일부를 교체하였다. 한옥보다 일반 목조건축에 가까운 투박한 지붕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 지붕 내부구조는 각재 서까래와 미늘판자로 마감했다.

그 시대의 삶에 맞게 개량한 한옥이기에 전통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대성을 드러내는 담장과 대문의 형상은 유지한 채 마감재를 교체하였으며, 본체의 외벽은 기능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구조재를 과감하게 가리고 현대식으로 마감했다.

내부 공간은 칸으로 구획된 기존 평면을 고려하여 계획했다. 대청을 중심으로 각 칸을 구획하던 비내력벽을 모두 철거하여 전체공간을 개방된 구조로 구성했으며, 칸을 나누는 구조 부재를 기준으로 소형 정원과 함께 거실, 욕실, 식당, 그리고 침실을 각각 배치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실 칸은 외부의 높이와 동일하게 바닥 단을 낮추었다. 중정에서부터 연장되는 거실은 외부와 내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공간으로 알코올 난로와 프로젝터가 있으며, 문만 열면 언제든 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

석재 욕조는 거실과 연결하여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언제나 중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욕조 전면에는 출입구에서 이어지는 복도를 형성하여 입구에 상징성을 주었으며, 소여정에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소여정은 인구밀도가 높은 경주의 주요 관광지이자 아주 가까이 위치하지만 숨어있는 듯한 오래된 공간이다. 복고적인 모습이 녹아 있는 전형적인 개량한옥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한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여정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전통 건축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民宿小余情位于庆州汇集了代表性遗址，商圈最为发达的庆州市皇吾洞的皇理团路。这里原本是一间有别于传统韩屋，属于大众生活环境的老旧改良韩屋，除了瓦顶以外，与传统韩屋的特性相距甚远，采用了1970年代的瓷砖样式和纹理混杂的门楣等，混合着许多不同时代的设计样式。考虑到这一点，设计师决定将改良韩屋改造成融入不同样式和施工方法的全新空间。

为了解决木结构基坛部分腐坏和构件下沉的问题，设计团队进行了近乎于重建的大规模更换。拆除所有椽木与上端的土和瓦，进行重新施工，对大梁、柱子和一部分楣梁也进行了更换。为了保留更接近于普通木制建筑而非韩屋的粗糙的屋顶形状，采用板材椽和遮光格栅完成了屋顶的内部结构。由于是按照各时代的生活方式进行改良的韩屋，因此和传统相比，更重视变化。设计师保留了体现时代性的围墙和大门样式，只更换了外饰材料，而主屋的外墙则考虑到功能性和使用性，果断地遮挡住了旧的建材，用现代风格进行了外饰施工。

内部空间按照原有的房间规划进行重新布局。以大厅为中心，拆除了所有原本用作房间隔断的非承重墙，将整个空间打造成开放的结构，再以划分房间结构的构件为标准，与小型庭院一起，划分出客厅、浴室、餐厅和卧室的布局。客厅空间做了下沉处理，地面高度与外部高度一致。从中庭延伸出来的客厅是同时具备室外性质和室内性质的空间，配有酒精暖炉和投影仪，随时都可以打开门走入庭院。石制浴缸与客厅相连，是人们逗留时间最长的空间，设计成了可以随时看到中庭的布局。浴缸前方是连接着入口处的走廊，给入口带来了象征性，象征着开启在小余情的旅程。小余情虽然靠近庆州人口密度较高的主要景点，却是一个大隐于市的历史悠久的空间。小余情既保留了融入复古情调的典型改良韩屋的氛围，又能够体验到全新形态的韩屋，呈现了形态多变的传统建筑的另一张面孔。





